

최근 학과 관련 수업을 들으며 탈시설화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2025년부터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기사에서도 탈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탈시설화란¹⁾ 장애인 생활시설이 규모 혹은 생활인 수를 줄이면서, 시설 밖에 있는 개인이나 가족, 혹은 다른 시설 조직 단체 지역사회의 여러 공익조직이나 기관들과 유기적인 연결망을 구축하면서, 생활을 유지 발전 혹은 존속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탈시설화는 단지 장애인들의 사회화를 위한 것 뿐만이 아닙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통제들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탈시설화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사회는 아직 장애인들이 직업을 구하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직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탈시설화는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생활시설의 생활인이나 규모의 수를 줄여야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케어한다고 가정했을 때, 발달장애인의 행동장애, 이상행동 등 케어해주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함께 있는 시간 내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처음부터 시설에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로 보내게 되는 상황도 많이 일어납니다. 생활시설에는 생활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탈시설을 원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²⁾탈시설을 원치 않거나 탈시설을 할 수 없는 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시설 보호를 통해 그들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복지나 행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탈시설 정책은 탈시설로써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거주시설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상황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설 축소 및 폐쇄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고, 이들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입니다.

또한 사회에는 장애인들이 혼자힘으로 자립하기 위한 시설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탈시설화로 인해 가정에서 장애인을 케어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가족구성원들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그들을 직접 케어하다보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중단되면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³⁾ 또한 2011년 정부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100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을 줄이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30인 이상의 시설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강정배 외, 2019). 그러나 소규모화 정책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의 대안이 되지 못하였고, 장애인의 가족 또는 지역사회가 보호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일정한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보호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시설 서비스는 한국의 장애인복지 영역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혹은 발달장애인의 기능적 약함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족 또는 전문가에 의해 거주시설에 사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시설화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악순환이 지속될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탈시설화를 하기 보다는 사회에 장애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합니다.

⁴⁾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1) 신근효, 「중증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2021.8. p.11

2) 조성혜, 「발달장애인 탈시설화의 문제점」, 2022.8. p.1 p.2

3) 최혜원, 「중증장애인의 탈시설화 실현방안 연구-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2019.12. p.2

4) 최혜원, 「중증장애인의 탈시설화 실현방안 연구-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2019.12. p.2

이며, 장애인이 복지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국가와 사회에 대한 자립생활 요구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⁵⁾탈시설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35.4%가 “경제적인 자립”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탈시설화에 대한 두려움은 “보통이다”와 “그렇다”가 각각 25.0%, 매우 그렇다가 23.1%로 조사되어 대다수의 입소자들이 탈시설화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의 낙인을 없애고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제도를 확충해야 할 것 입니다.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해나가야하는 과제 중 하나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아직 현재 사회의 시선은 좋지 않고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기 위한 시설들이 갖추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탈시설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입니다.

5) 송혜원, 「만성정신장애인 탈시설화에 대한 거리감 및 두려움연구」, 2021.6, p.7 p.8